



봤느냐!

### 내일은 일본 깨주마

51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이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란과의 8강경기 연장승부에서 윤빛가람(왼쪽에서 두 번째)의 천금같은 결승골이 터지자 환호하고 있다. 1-0으로 이란을 제압한 한국은 25일 밤 10시25분 속적 일본과 결승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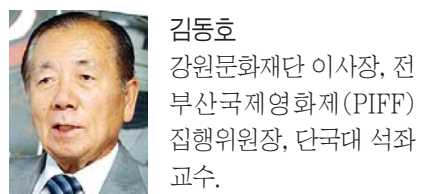
#### 광주일보-광주문화재단 공동 시민아카데미

### '문화나무 상상강좌' 열립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태)과 공동으로 '문화나무 상상강좌'를 연중 운영합니다. '문화광주의 내일을 상상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강좌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스타급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부 강의 주제와 일정은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전액무료이며, 선착순 100명 입장. ▶관련기사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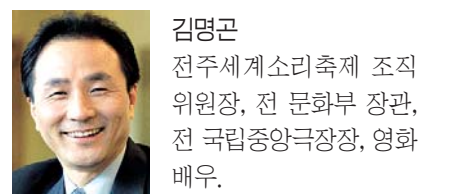
- 일시: 1월28일~11월24일(7월 휴가철은 제외),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1월만 금요일 오후 2시) 오후 4시~5시(30분, 총 10차례 강의).
- 장소: 광주문화재단 빛고를 문화관 4층 다목적홀, 062-670-7421, 062-220-0651

#### 1월28일=광주, PIFF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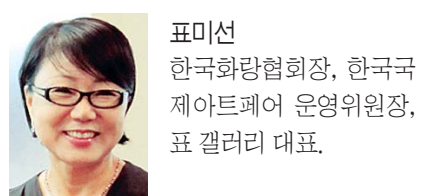
**김동호**  
광주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국제영화제(PIFF) 집행위원장, 단국대 석좌교수.

#### 2월24일=우리 소리, 우리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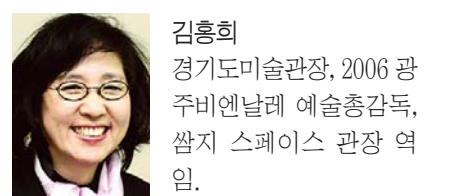
**김명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전 문화부 장관, 전 국립중앙극장장, 영화배우.

#### 3월24일=지금도 아토페어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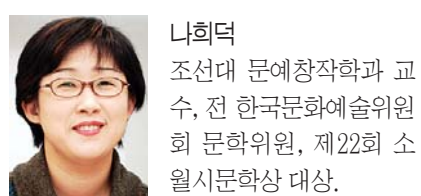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한국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장, 표 갤러리 대표.

#### 4월28일=미술관이 도시를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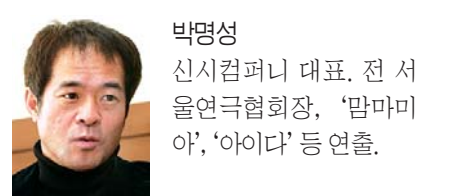
**김희희**  
경기도미술관장, 200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샘지 스페이스 관장 역임.

#### 5월26일=시(詩)가 있어 행복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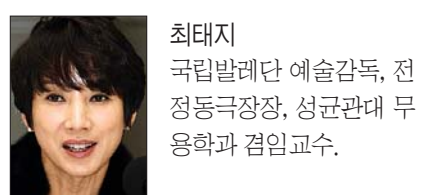
**나희덕**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위원, 제22회 소설시문학상 대상.

#### 6월23일=가장 낮은 곳에서면 꿈을 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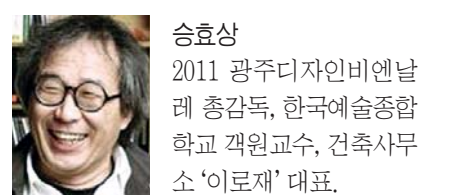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전 서울연극협회장, '맘마미아', '아이디' 등 연출.

#### 8월25일='당신'을 위한 예술, 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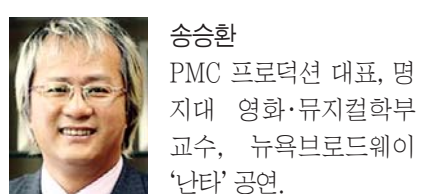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전 정동극장장, 상관대 무용학과 겸임교수.

#### 9월29일=도시를 살리는 비움의 미학



**송효수**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 10월27일=세계의 마음을 두드린 난타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 명지대 영화·뮤지컬학부 교수, 뉴욕브로드웨이 '난타' 공연.

#### 11월24일=미적체험교육, 그 무한한 가능성



**스캇 녹 브랜던**  
뉴욕립컨터 예술교육원장, 문화예술교육전문가, 'Imagination First' 출간(2009년).

光州日報社

## 고삐 풀린 설 물가 민생 비상 AI·구제역 장기화

돼지고기 한달새 86% 급등... 과일도 큰폭 올라

영양·보성 AI 양성 재확산 우려 속 구제역 방역 총력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다 이상기온으로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생활물가 고공행진에 한파로 채소 값까지 치솟는 등 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설 명절 준비는 힘들기만 하다.

▷사상 최고치 돼지고기 값=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나주축산물공판장 돼지고기(탕박·1등급) 도매가격은 kg당 6446원으로 한 달 사이 86.4%가 급등했다. 특히 돼지고기 값은 지난 19일 kg당 6101원으로 처음으로 6000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30일 5259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돼지고기 값 상승은 생산 두수가 감소한 데다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 수요가 크게 준 반면 돼지고기 수요는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는 명절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일 값 고공행진=설 대목을 앞두고 선물물 수효는 크게 늘었지만 이상기온으로 산지 출하물량이 줄면서 과일 값이 크게 올랐다.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과(후지·15kg) 도매가격은 9만원으로 1년 사이 80%나 급등했다. 또 배(신고·15kg)도 도매가격이 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가 올랐다. 이외에 단감(15kg)도 5만원으로 48%가, 감귤(15kg)도 39% 오른 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 ■광주·전남지역 농·축산물 가격 추이

품목	2011.01	2010.01	증가율
돼지고기(kg)	6,446	3,670	76%
사과(15kg)	90,000	50,000	80%
배(-)	43,000	27,000	59%
단감(-)	50,000	33,800	48%
대패(1kg)	3,800	1,500	153%
양파(-)	1,000	550	8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한파가 이어지면서 생육부진으로 채소값도 오르고 있다. 한 달 전 6400원에 거래됐던 시금치(상품·4kg)는 현재 1만원으로 56%나 올랐으며, 애호박(8kg)은 3만3000원으로 72%나 급등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병했다. 영암과 보성의 종오리 농장에서 AI 양성(H5형) 반응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지난 14일 이후 8일 만이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AI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영암군 덕진면과 보성군 노동면 종오리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22일과 23일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H5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영암 종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9농가에서 사육중인 12만 마리의 닭·오리를 파문기로 했다. 보성의 경우 반경 3km 이내 다른 사육 농가가 없어 해당 농장의 오리 1만4000마리만 매몰 처분기로 했다.

의심신고가 이어지는데다,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10km까지 설정한 경계지역에서 방역당국의 허가없이 병아리를 대량으로 입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방역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남군의 산이면 닭 사육농가에서 지난 21일 2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나주시 공산면·동강면·문평면 등에서 23일 고병원성 AI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경계지역 안에 위치한 5개 농가가 병아리 43만 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로 해당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AI가 3주 이상 장기화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당분간 재입식하기도 힘들고 소비 위축까지 이어져 어느 때보다 추운 설 명절을 보내야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매몰 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인 150억원과 생계안정비 1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농가의 소(54만7000마리)·돼지(10만4000마리)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22일 모두 마무리했지만 접종 이후 폐사한 소(유산·사산도 포함)가 134마리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나섰다. 광주시도 전남지역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영암군에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등 6개팀 30여명을 투입해 지원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김해 추촌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지희기자 dok2000@

## 생포 해적 5명 한국으로 압송한다

삼호주얼리호 27일 오만 도착

군 당국은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축된 삼호주얼리호가 오는 27일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종명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육군 소장)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삼호주얼리호는 현재 최영환의 호위 아래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해군(58) 삼호주얼리호 선장은 해적이 쓴 AK소총에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제3국에 인계하지 않고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인질 구출 작전에서 공을 세운 장병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인삼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귀하게 담아 피부 재생의 격을 높인다

**雪花秀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CREAM 자음생크림**

지난 2천년 동안 사람들은 인삼의 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수 한방과학은 인삼 뿌리의 효능에 진생베리의 성분을 더하면 획기적인 피부 재생력이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삼 뿌리의 사포닌과 진생베리 성분이 겉과 속에 활력을 더해 재생효과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당신이기에 전하고 싶은 재생의 진실  
설화수 자음생크림

### Sulwhasoo

AMOREPACIFIC CORPORATION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Seoul 2011  
PLATINUM SPONSOR  
(주)아모레퍼시픽은 제22차 세계피부과학회 공식 후원사로 활동합니다.